

■ 특집 :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

## “메스티사헤(mestizaje)”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인종주의

김기현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 I. 서론

이코노미스트지 최근호<sup>1)</sup>는 콜롬비아 흑인<sup>2)</sup> 문제를 다루면서 보고타에 소재하는 안데스 대학(University of the Andes)의 한 사회학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다. “콜롬비아에 인종주의가 없다는 신화는 최대의 인종차별적 표현이다.”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는 인종문제에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화가 존재한다. 라틴아메리카에는 혼혈과 인종 통합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인종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차별이 사회적이라기보다 인종적인 것이라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차별은 인종적이라기보다 사회적인 것이다. 그럼으로 라틴아메리카는 인종문제 해결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인종문제는 혼혈의 이데올로기와 국가 통합정책에 따라 비록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뿐 문제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라틴아메리카를 볼 때 가장 당황스러운 사실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인종차별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의 존재가 부정된다는 점이다.

1) “Debating quatas”, *The Economist* (Jul. 30, 2009)

2) 200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콜롬비아의 흑인 인구의 비중은 자기 정체성 정의 기준에 따라 전체의 10.6%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26%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는 콜롬비아의 흑인 인구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브라질, 미국 다음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500년간의 혼혈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는 엄연히 원주민과 흑인으로 구분되는 인종 혹은 종족<sup>3)</sup>이 존재한다. 많은 국가에서 이들의 비중은 미국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최근에는 라틴아메리카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종에 따른 문화적, 경제사회적 차별들이 학문적 연구나, 언론이나, 정부의 정책 등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스페인의 유명 신문 『엘pais(El País)』의 편집인인 이반 브리스코의 언급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원주민이 다수인 볼리비아,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백인 지배의 유사한 사회 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있어 빈곤의 수준과 피부색의 일치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500년에 걸친 혼혈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의미 없게 만들었다는 신화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sup>4)</sup>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종 민주주의(racial democracy)’의 브라질이나 원주민 대통령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를 탄생시킨 멕시코에서조차 암묵적 인종차별 즉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무엇보다 실제적 측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차별은 매우 뚜렷이 드러난다.<sup>5)</sup> 브라질에서 흑인과 물라토의 연 평균 소득은 백인의 65%에 불과하며, 베네수엘라에서는 우고 차베스에 대한 지지가 흑인과 혼혈인 그리고 백인 사이에 뚜렷이 갈라지고, 백인 엘리트들이 차베스를 삼보(원주민과 흑인의 혼혈)라고 비난하는 현상들은 라틴아메리카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인종차별과 갈등의 몇몇 사례에 불과하다. 심지어 카스트로 이전 거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가깝던 쿠바 사회가 혁명을 통해 흑인과 백인의 평균 수명

3) 인종은 피부색에 따른 개념이고, 종족은 문화적 성격에 따른 개념이다.

4) Ivan Briscoe, “The time of the underdog: rage and race in Latin America”, Open Democracy (2005) [www.opendemocracy.net/democracy](http://www.opendemocracy.net/democracy) (검색일: 2008년 2월 28일)

5) “편견은 태도, 감정, 신념의 차원이라면 차별은 구체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박경태, 『인종주의』 (서울: 책세상, 2009), p.30. 실제 사회에서 인종에 대한 개인적 편견은 감소할 지라도, 사회적 목적에 따른 차별구조는 지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은 흑인에 대한 편견이 없지만, 고객이 흑인 직원을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흑인의 채용을 꺼리거나, 흑인이 주변에 이사를 옴으로써 동네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이웃에게 흑인에게 집을 팔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림으로써 인종차별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경제적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인종차별문제를 다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라틴아메리카 인종문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근까지 인종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바로 메스티사헤(mestizaje)<sup>6)</sup> 이데올로기가 지배했기 때문이다. 메스티사헤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혼혈로 인해 순수한 인디언과 흑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문화적으로도 순수한 인디언 문화 혹은 흑인 문화라는 것은 없다고 한다.<sup>7)</sup> 따라서 인종차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 존재하는 인종간의 경제사회적 차이는 단지 식민지적 유산 혹은 노예제의 유산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메스티사헤 주장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 인종적 편견과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도 무엇보다 메스티사헤 담론으로 인해 감추어진 라틴아메리카 인종주의의 현실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를 위해 이 글은 주요 사례로서 페루, 멕시코, 쿠바, 브라질에 존재하는 인종주의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페루와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다. 비록 페루와 멕시코 원주민의 비중이 과테말라나 볼리비아의 그것보다는 작지만 국가의 규모로 인해 원주민의 절대적 수는 페루나 멕시코가 더 많다. 게다가 이들 국가에서는 일찍이 20세기 초부터 인디헤니스모나 메스티사헤의 담론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었다. 한편 쿠바와 브라질 또한 흑인 인구의 비중이 매우 큰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페루나 멕시코와 같이 인종민주주의나 문화적 혼종 즉 메스티사헤의 담론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6) 메스티사헤는 다른 인종 간의 생물학적 혼혈을 의미하는 영어의 miscegenation보다 넓은 의미에서 생물학적 혼혈과 더불어 문화적 혼종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7) Peter Wade, “Rethinking Mestizaje: Ideology and Lived Experienc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7 (2005), pp.239-257; Lourdes Martinez-Echazabal, “Mestizaje and the Discourse of national/Cultural Identity in Latin America, 1845-1959”,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5 (May 1998), pp.21-42.; Magnus Mörner, *Race Mixture in the History of Latin America*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1967).

즉 이들 본 연구가 사례로 삼고자 하는 네 개 국가는 원주민과 흑인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메스티사헤 담론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메스티사헤 담론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인종주의를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네 나라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화적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살펴봄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주의의 전반적 모습을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 II. 원주민과 흑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구조

### 1. 페루의 지적 능력에 따른 인종 차별

비록 호세 바스콘셀로스(Jose Vasconcelos)<sup>8)</sup>가 인종적 혼혈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혼혈 담론은 대부분 문화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인종차별도 생물학적 차이보다 문화적 차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최근의 인종 차별은 식민지 시대와 같이 힘에 의한 제도적 차원의 차별이라기보다는 지적, 도덕적, 문화적, 신체적 열등감과 같은 내재적 차원의 차별이다.

페루의 인류학자인 마리솔 데 라 카데나(Marison De la Cadena)<sup>9)</sup>에 따르면 페루의 경우 인종 구분이 유전적 외형보다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지성이나 도덕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19세기말부터 페루 해안 지역의 백인 지배 엘리트들은 실증주의와 도덕적 이상주의 영향하에서 지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성과 도덕성은 지리적으로 불평등한 교육 조건으로 인해 안데스 산악지역보다 리마와 같은 해안의 도시 지역에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영구화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안데스 산악지역의 메스티소나 원주민 지식인들의 부상은 해안 지역 백인엘리트들의 그러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메스티소나 원주민 지식인들은 피부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적 능력으로 인해 백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8) Jose Vasconcelos, *The Cosmic Race*, Edited by Didien T. Jaé'n (Los Angele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초판 1925).

9) Marisol De la Cadena "Reconstructing Race. Racism, Culture and Mestizaje in Latin America",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34 (May-June 2001), p.18.

이러한 인종의 문화적 구분으로 인해 페루에서는 기존의 백인성이 해체되고 ‘트리게뇨(trigueño: 겉은 누른색이지만 속은 흰색)’ 백인성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트리게뇨’ 백인성의 형성은 대부분의 갈색피부의 메스티소 지식 엘리트들에게는 인종적 피난처를 제공했지만, 반면 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메스티소들은 “예절 없고, 비도덕적이고, 부패한” 출로(cholo)<sup>10)</sup>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페루의 출로는 생물학적 혼혈인의 의미보다 교육을 받지 못한 비도덕적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었다.

안데스 지역 원주민이나 메스티소 지식인들의 출현으로 인해 리마의 백인들은 더 이상 안데스 지식인들의 피부색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페루에서 인종적 차이는 피부색보다는 지성과 도덕성 그리고 교육 수준에 의해 규정되기 시작했다. 즉 페루의 메스티소나 원주민들은 적절한 지적 능력만 보여주면 자신이 속한 피부색에 따른 인종그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sup>11)</sup>

그에 따라 페루에는 미국 남부나 남아프리카와 같은 피부색에 의한 인종주의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페루에 인종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페루의 인종주의는 생물적 외관보다는, 도덕, 지성, 교육 수준과 같은 내부적 자질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교육을 받은 소수의 메스티소나 원주민들은 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했지만,<sup>12)</sup> 그렇지 못한 다수의 메스티소 즉 출로와 원주민들은 지적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서 차별 받았다.

그러나 지적 능력을 인종의 조건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종주의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부색을 무시한다고 그것이 인종차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신 페루에서는 이제 피부색이나 인종적 라벨이 지적 “무능함”을 의미하는 결과

10) 안데스 지역의 혼혈인들을 부르는 명칭이다. 그러나 비단 혼혈인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으로 이주해 도시화된 원주민들도 포함된다.

11) Marisol De la Cadena, “Silent Racism and Intellectual Superiority”,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17 (May 1998), pp.146-147.

12) 페루의 전 대통령인 알레한드로 톨레도(Alejandro Toledo)는 안데스 산악 지대 출신의 원주민으로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벨기에 태생의 인류학자와 결혼했다. 비록 그가 선거 캠페인 기간을 통해 출로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육을 통해 백인의 정체성을 획득한 출로라고 할 수 있다.

를 가져왔고, 따라서 인종차별은 교육의 교정능력에 대한 강조를 통해 정당화되었다. 지적 능력에 따른 차별 구조 그리고 교육에 의한 차별의 해소라는 도식은 페루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에게 인종주의자라는 낙인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면죄부를 제공해 주기는 했지만, 실제 페루 사회에서 인종주의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페루에서는 일찍이 스톨케<sup>13)</sup>가 언급했던 ‘인종 없는 인종주의(racism without race)’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페루에서도 메스티사헤의 지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페루에서 메스티사헤가 멕시코나 브라질과 같이 국가의 공식적 프로젝트가 된 적은 없다. 대신 페루에서는 ‘다양성 하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이라는 구호 아래 순수한 원주민 문화를 부각시키는 인디헤니스모가 오히려 더 강조되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인디헤니스모가 원주민들의 차별 구조를 역시 해소할 수는 없었다.

정부가 원주민 민속을 강조하고, 그들을 종족그룹의 틀 속에 묶어두려는 정책을 강화하는 동안, 페루의 원주민들은 문화적 차원에서 트리계노 백인성 형성과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인디언성(Indianness)’을 교육을 통한 개인적 성공 달성에의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빈곤과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규정했다. 원주민들은 언어와 복장등 원주민 문화적 요소를 간직하는 한편, 인디언을 상징하는 문맹과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적 성공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우렸다. 그들이 인디언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문맹을 버리고, 자신이 소속된 농장을 벗어나, 교육을 통해 동등한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페루 원주민들의 이러한 태도는 페루에서 원주민 정체성 운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맹과 빈곤의 인디언성을 벗어난 원주민들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메스티소(mestizo)’라 부른다. 물론 이때의 메스티소는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메스티소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데 라 카데나<sup>14)</sup>는 또 다른 글에서 페루 원주민들의 이러한 메스티소화를 ‘원주민적 메스티사헤(Indigenous Mestizaje)’라 정

13) V. Stolcke, "Talking culture. New Boundaries, new rhetorics of exclusion in Europe", *Current Anthropology*, 36 (1995), pp.1-24.

14) De la Cadena "Reconstructing Race", p.23.

## “메스티사헤(mestizaje)”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인종주의

의했다. 이들 원주민적 메스티소들은 원주민의 관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식교육을 받고, 태생어와 원주민어를 동시에 사용하며, 도시와 시골을 오가면서 살아간다. 이들은 출로에게 씌워진 비도덕성의 평판을 벗고, 교육을 통해 빈곤하고 열악한 사회적 조건을 극복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2. 멕시코: 백인 vs. 원주민에서 메스티소 vs. 원주민의 구도로

멕시코는 20세기 초 혁명의 결과 메스티사헤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나라이다.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 마누엘 가미오(Manuel Gamio), 알폰소 카소(Alfonso Caso) 등에 의해 주도된 메스티사헤와 인디헤니스모는 원주민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시에 국가적 통합을 위해 멕시코인들의 인종적 혼혈과 문화적 혼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비록 인디헤니스모가 원주민들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원된 것은 원주민 문화의 죽은 과거이지 현재의 원주민 즉 ‘살아있는 원주민’은 아니었다. 즉 박물관에서 원주민은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현실에서 원주민은 여전히 배제되고 부정되었다.<sup>15)</sup>

멕시코는 혁명을 거치면서 디아스 시기의 인종주의는 소멸되었다. 그러나 인종주의는 표면적으로 사라졌을 뿐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즉 인종의 생물학적 차이는 사라졌으나 일상에서의 다양한 차별구조는 남아있다. 멕시코 혁명이 인종 간의 카스트적 장벽을 붕괴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혁명 이후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인디헤니스모는 원주민을 멕시코의 ‘진정한 영혼(real soul)’이라고 추켜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실에서 원주민들은 여전히 열등한 존재에 불과하다. 인디헤니스모가 지배적 담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여전히 “게으르고, 교육이 부족하고, 스페인어가 서툴고, 촌스러운” 존재로 남아 있다. 게다가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을 통한 백인화 과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멕시코의 어떤 대통령도 자신보다 더 어두운 피부의 여자와 결혼하지 않

15) 김세건, 「메스티소와 원주민 사이에서: 멕시코 국민주의와 원주민 종족성」, 『한국문화인류학』, 36-2 (2003), pp.3-36.; 김윤경,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이념적 성격: 마누엘 가미오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9-3 (2006), pp.159-194.



왔다”라는 식의 언급들은 바로 열등한 존재로서 원주민의 현실과 사회의 공공연한 백인화 추구 경향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다.<sup>16)</sup>

인디헤니스모는 기본적으로 메스티사헤 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인디헤니스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원주민은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축소되거나 은폐되어 왔다. 멕시코인이 되려면 메스티소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원주민의 정체성은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메스티사헤가 원주민의 차별구조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원주민은 여전히 “문제 있는 혹은 열등한 존재”였고, 원주민들의 경제 사회적 차별구조 또한 개선되지 않았다. 메스티사헤 이데올로기 하에서 기존의 백인과 원주민의 양극화 구도가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양극화 구도로 변화 되었을 뿐이었다.

### 3. 쿠바: 인종적 편견과 경제사회적 차별구조

혼혈의 담론들은 혼혈이 이상적 인간을 창출하고, 따라서 혼혈이야말로 자랑할 만한 민족적 성취라고 추켜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인종주의적 전제를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쿠바 문화에 있어 흑인문화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 오르티스(Fernando Ortiz)는 흑인의 태생적 범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멕시코 혁명사상가들의 인디헤니스모 또한 원주민들을 자신의 권리를 가진 역사적 행위자로 보기보다는 국가가 개입해서 돌봐주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다.<sup>17)</sup> 즉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혼혈 담론들에는 여전히 원주민과 흑인을 백인과 동등한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는 인종주의적 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쿠바의 지배층은 20세기 초까지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백인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쿠바도 백인 국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사탕수수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을 카리브 이웃국가들의 이주흑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이유 등으로 인해 쿠바의 백인화 시

16) Alan Knight, “Racism, Revolution, and Indigenismo: Mexico, 1910-1940”, in Richard Graham, ed., *The Idea of Race in Latin America, 1870-1940*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6), pp.98-102.

17) Richard Graham, “Introduction”, in Richard Graham, ed., *The Idea of Race in Latin America, 1870-1940*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6), p.4.



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쿠바는 아르헨티나와 달리 다인종 사회로 남게 되었다. 쿠바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독립 이후 현재까지 쿠바에서 흑인의 존재는 민족적 통합을 위한 하나의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호세 마르티<sup>18)</sup>는 인간을 백인, 몰라토, 흑인으로 나누는 것을 ‘반인륜적, 비애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독립이 쿠바를 아이티와 같은 흑인공화국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식민지 당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르티는 쿠바 흑인의 “관대함, 미덕, 자유에 대한 사랑, 위대함과 신중함”을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종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인종주의자로 규정했다.

쿠바 역사적 영웅의 이런 사상에 따라 쿠바에서는 인종문제에 대한 의식적 침묵이 강요되었다. 따라서 인종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은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인종주의자이자, 신성한 국가 통합을 방해하는 비애국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쿠바에서 국민적 통합의 대의는 결국 인종적 정체성의 희생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쿠바 흑인이 자신의 아프리카성을 강조하거나 흑인으로서 구체적 불만을 언급하는 것은 지배적인 국가 통합에 반대하는 비애국적 행위가 되는 것이었다.

그에 대해 데 라 푸엔테<sup>19)</sup>는 이러한 상황을 인종과 민족이 병행될 수 없다는 식민지적 담론을 약간의 포용적 의미를 가지고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쿠바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인종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언론 등을 통해 인종문제를 쿠바의 공적 관심의 전면에서 부각하면서 쿠바사회의 다인종성을 상기시키고, 나아가 쿠바사회에서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이 처한 종속적 지위를 고발하는 것만이 인종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한편 마르티의 흑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초기 흑인문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원시적, 야만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8) Jose Martí, *Obras Escogidas*, 3 (Havana: Editora Política, 1992), pp.205-207.

19) Alejandro de la Fuente, “Race, National Discourse, and Politics in Cuba: An Overview”, 25 (May 1998) pp.44-45.

1930년대 이후 쿠바에서도 흑인문화가 쿠바민족문화 형성에 끼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르티스와 같은 지식인들은 쿠바 문화에 있어 흑인이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sup>20)</sup>

그러나 오르티스는 비록 드러내 놓고 인종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인종주의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헬그<sup>21)</sup>는 오르티스가 아프리카계 쿠바인들의 범죄성 이론을 설립하면서 인종주의적 사고를 탈피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심지어 오르티스는 혼혈의 가치에 대해서도 멕시코의 바스콘셀로스의 ‘우주적(조화된) 인종’ 수준의 확신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즉 오르티스는 혼혈을 통한 백인화의 희망과 그를 통해 ‘하급’인종의 ‘나쁜’ 성격들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르티스의 문화적 혼혈 주장도 결국은 백인 우월주의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쿠바 사회는 인종문제에 대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나, 가족 간의 관계,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직장 파트너 등등 일상적 삶의 수준에 있어서 개인의 인종적 구분이 강력한 차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종적 차별구조를 보여주는 한 예로서 바디요의 글은 상징적이다.<sup>22)</sup> 그는 이웃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흑인이 곱슬머리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준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흑인 여성이 곱슬머리를 한다는 것은 “격식 없고, 품위 없고, 저항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여성”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흑인 여성들은 사회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움과 아픔을 참아내고 정기적으로 머리 펴는 일을 참아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식민지적 유산이 아니라 카리브 국가들의 일상에서 생생히 나타나는 인종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최근

---

20) Fernando Ortiz, *Contrapunteo Cubano del Tabaco y el Azúcar* (Madrid: Catedra, 2002).

21) Aline Helg, “Race in Argentina and Cuba, 1880-1930: Theory, Policies, and Popular Reaction”, in Richard Graham(ed.), *The Idea of Race in Latin America, 1870-1940*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6), pp.60-61.

22) Casandra Badillo, “Only my Hairdresser Knows for Sure”,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34 (May-June 2001), pp.35-37.

흑인 여성들에서는 머리 펴는 것을 중단하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쿠바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한편 쿠바의 사례가 보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사적 통합 정책과는 달리 혁명정부에 의한 실질적인 인종 차별 해소의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혁명 정부에 있어 인종 문제가 핵심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인종문제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혁명 정부의 사회정의 추구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관계에 존재했던 제도적 차별 행위들을 제거함으로써, 학교, 해변, 사회클럽과 같이 개인적 차원이거나 인종적 차원에서 흑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되었던 배타적인 시설들에 흑인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했다. 혁명정부의 재분배 정책 또한 빈민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갔다. 그 결과 혁명 정부 하에서 인종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극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 인종문제에 대한 시각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었다. 혁명의 지도자들은 혁명 직후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인종 평등을 지지하는 급진적 통합프로그램들을 추진하였으나, 1960년부터 사회적 통합을 공고히 할 필요성에 우선권을 두면서 인종문제에 대한 언급을 중단시켰다. 그러한 결정은 혁명지도부가 기본적으로 인종을 계급의 부산물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혁명 지도부는 인종주의가 식민지적 유산으로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인종문제의 부각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로 인해 혁명 이전의 어떤 억압적 정부 하에서도 인종 문제가 완전히 배제된 적이 없었던 것에 비해 오히려 혁명정부 하에서 인종문제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금지되었던 것이다. 비록 쿠바 문화에 있어 아프리카적 뿌리에 대한 강조는 충분히 인정되고 강조되었지만, 국내 정치인종문제에는 혁명정부 하에서도 인종에 대한 공식적 침묵이 유지된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1990년대의 경제적 위기는 쿠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 인종문제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었다. 정부가

군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은 인종적 차별구조를 다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달러 송금의 허용과 같은 정책은 주로 미국에 친척을 두고 있는 백인 쿠바인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었지만, 그러한 고리가 없는 대부분의 흑인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sup>23)</sup> 게다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과 몰라토가 다수였던 관광업에 있어, 1990년대부터 팁 등을 통한 달러 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백인의 비중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sup>24)</sup> 따라서 달러 송금을 받을 수 없고, 달러 수입이 가능한 직업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프리카계 쿠바인들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차 매춘과 같은 불법적인 일들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1994년 8월에 발생한 말레콘 폭동은 이러한 인종적 긴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폭동은 아프리카계 쿠바인들이 혁명정부 하에서 정부 사회정책의 수혜자만은 아님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면 혁명과 같은 급진적 사회변혁에도 불구하고 쿠바에서 인종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쿠바 인종문제의 권위자인 데 라 푸엔테는 최근 또 다른 글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종문제의 감소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사회구조의 변화만으로 인종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종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인종적 편견의 여지를 사라지게 할 문화적 정신적 태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조건들과 사회적 행위자들에 대응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결국 쿠바의 사례는 인종 간의 차별구조,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차별구조 즉 인종적 편견은 혁명정부의 급진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비록 사회 정책을 통해 흑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인종 차별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종문제가 단순히 물질적 수준의 차이를 넘어 의식의 문제에까지 확산되

---

23) 쿠바계 미국인 중 쿠바에 있는 친척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프리카계 쿠바인의 비중은 약 16.5%에 불과하다(Alejandro de la Fuente, "The Resurgence of Racism in Cuba",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34 (May-June 2001), p.32.).

24) *Ibid.*, p.34.

“메스티사헤(mestizaje)”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인종주의

어 있기 때문이다.

쿠바의 지배층은 쿠바 사회의 흑인의 존재에 대해 항상 우려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인종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흑인 문화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동시에 인종문제에 대해서는 늘 침묵하고자 했다. 그러한 기조는 혁명 정부 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메스티사헤와 통합의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구조 즉 편견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혁명정부 하에서도 경제위기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흑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사실은 혁명 이후 쿠바 사회에서도 인종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 III. 원주민과 흑인의 경제사회적 차별구조: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브라질은 독립 이후 지배 계급에는 자유가 주어졌으나 노예제는 지속되었다. 1888년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코로넬(coronel)이라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전형적 지배 하에서 흑인들의 차별과 불평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브라질의 엘리트들은 공식적으로 피부색에 따른 인종주의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종의 문화적 생물적 혼혈과 혼종을 국가적 이상으로 삼았다. 그에 따라 브라질 백인의 정체성은 가장 포용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다. 즉 유럽인과 신체적 특징이 유사한 모든 혼혈인까지 백인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미국에서는 흑인의 피가 조금만 섞여도 흑인 정체성을 가지는 데 비해, 브라질에서는 백인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비 흑인으로 분류된다. 브라질에서 혼혈인<sup>25)</sup>은 흑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sup>26)</sup>

브라질에서는 1920년대까지 백인화가 이상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일부 지식인들은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관심

25) 흔히 브라질의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은 몰라토(mulato)라고 부르지만, 그러한 명칭은 현지에서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브라질 인구조사에서 공식적으로 혼혈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파르도”(pardo: brown)이나, 브라질의 혼혈인들은 자신을 파르도라고 부르기 보다는 “모레노”(moreno: 원래 어두운 색 머리와 피부를 가진 백인을 의미하는 말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

26) Antonio Sergio Guimarães, “Race, Class and Color. Behind Brazil’s ‘racial democracy’”,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34 (May-June, 2001), pp.38-39.

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대표적 인물이 바로 질베르투 프레이리<sup>27)</sup>이다. 그는 브라질의 인종적 정체성을 재정의하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혼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농장 문화 형성에 있어서도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의 영향을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 브라질의 인종적 다양함은 거대한 자산이지, 결점은 아니었다.

그러나 스킴드모어는 인종민주주의의 대표적 주창자인 프레이리의 담론을 백인화 이상의 또 다른 변종으로 보았다.<sup>28)</sup> 그는 프레이리와 같은 담론은 인종적 우월성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때 인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제시되는 종족적 통합 이데올로기의 하나로서 그 속에는 백인화의 희망과 불가피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한다. 브라질의 엘리트들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흑인이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고 따라서 혼혈이 퇴보가 아니라는 새로운 과학적 합의에 만족하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백인이 최고이고, 브라질은 점점 더 백인화 되어가고 있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스스로의 만족은 미국이나 나치 독일과 같이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지속되는 기술적 선진국들에 비해 도덕적으로는 브라질이 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50년대 중반까지 브라질은 ‘인종민주주의(racial democracy)’ 하에서 흑인과 백인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같은 기회를 향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만 흑인들이 가장 낮은 사회적 위치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최근까지 노예제 하에 있었다는 역사적 조건 때문이며,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경제 발전이 지속된다면 흑인들의 사회적 조건도 자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믿어졌다.

그러한 이유로 브라질은 1950년대 이래로 인종문제가 사라진 것으로 믿게 되었다. 심지어 1970년의 인구조사에서는 인종적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인종과 관련된 어떠한 통계도 조사되지 않기도 했

---

27) Gilberto Freyre, *Casa-Grande e senzala: Formação da Família brasileira sob o regime da economia patriarcal*, 20th ed. (Rio de Janeiro: Companhia Editora de Pernambuco, 1980; 초판 1933).

28) Thomas E. Skidmore, “Racial Ideas and Social Policy in Brazil, 1870-1940”, in Richard Graham, ed., *The Idea of Race in Latin America, 1870-1940*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6), pp.27-28.

다.<sup>29)</sup> 그로 인해 1970년대 브라질의 연구자들이나 정치인 나아가 대중들은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건, 교육, 직업 등등에 있어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등에서 작지만 인종민주주의의 지배적 신화에 도전하는 흑인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인종과 피부색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1980년 인구조사에서는 다시 인종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센벨그는 브라질 흑인들이 일부 신분 상승을 이룩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sup>30)</sup>, 사회 전반적으로는 흑인들을 사회의 가장 낮은 신분 계층에 가두어 두는 감추어진 인종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브라질의 인종적 불평등은 단지 과거 노예제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하는 그러한 장벽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페레이라와 람블라(Pereira y Rambla 2007)의 연구 논문은 브라질에서 인종적 평등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막는 사회적 장벽들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브라질의 흑인들은 인종적 배제의 기준이 되는 빈곤과 교육 기회, 그리고 실질적 불평등의 지표가 되는 실업률, 직업의 질, 임금수준 등에 있어 백인들에 비해 확연하게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sup>31)</sup>

빈곤률을 보면 1992년에 백인이 29%, 흑인이 55%였고, 1999년에는 백인이 23%, 흑인이 48%로 나타난다. 즉 흑인의 빈곤률이 백인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인구수로 보면 같은 기간 백인의 빈곤층은 14% 감소한데 비해, 흑인 빈곤층은 4% 감소하는데 그쳤다. 문맹률은 1992년 백인이 11%, 흑인이 26%, 그리고 2001년에는 백인이 8%, 흑인이 18%로 나타난다. 실업률도 1992년 백인이 6%, 흑인이 7% 수준이었던 것이 경제적 위기를 겪은 후 2001년에는 백인 8%, 흑인 10.6%로 보다 벌어졌다.

29) 당시 브라질의 군부정권이 이러한 극단적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1960년대 미국의 인종갈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30) Carlos A. Hasenbalg, *Descriminação e desigualdades raciais no Brasil* (Rio de Janeiro: Graal, 1979).

31) Rosangela Saldaña Pereira, y Xavier Rambla, “Desigualdad Racial en Brasil: la Realidad Desmiente el Mito”,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69(julio-septiembre 2007), pp.409-421.



이것은 위기의 영향이 흑인에게 보다 크게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직업의 질 측면에 있어서도 2001년 안정적 직업을 가진 백인의 비중은 49.6%인데 비해, 흑인의 비중은 34.7%로서 흑인이 직업의 질 측면에서도 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지금까지 브라질 인종민주주의가 주장했던 것이 허구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준다. 즉 인종적 불평등이 노예제의 유산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향상 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종간의 불평등이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브라질의 이러한 현실은 중장기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통해 인종간의 불평등이 점차 감소될 것이라는 인종민주주의의 논리가 실제로는 인종적 종족적 차이와 인종간의 장벽이라는 타성을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1988년에는 브라질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하여 인종 문제가 토론의 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인종적 자의식을 강조하는 어떤 시도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인종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브라질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 심지어 대중 전반에 있어서 인종적 화해와 타협의 유산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보다 백인 브라질에 대한 함축적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게다가 인종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지속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 인종문제의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카르도소 정부는 브라질의 인종주의를 인정하고 인종민주주의 대신 인종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을 취했다. 이것은 인종민주주의 이후 인종 그룹이 공식적으로 국가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된 최초의 사례이다. 따라서 이 조치의 가장 큰 의미는 브라질 정부가 인종적 불평등과 다양한 인종적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과거 인종민주주의와 단절했다는 점이다.<sup>32)</sup>

인종간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상황은 비단 브라질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

32) Mala Htun, “Racial Quotas for a Racial Democracy”,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38 (2005), p.22.

“메스티사헤(mestizaje)”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인종주의

근 세팔<sup>33)</sup>과 세계은행의 각각 500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라틴아메리카 거의 모든 국가에 걸쳐(세계은행은 원주민이 집중된 볼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의 사례만 분석) 인종간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현실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우선 세팔은 라틴아메리카 원주민과 흑인들의 구조적 차별이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위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소외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을 통해 상세하게 보여준다. 먼저 보건과 교육에서의 차별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세팔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유아사망률과 초등학교 교육을 마친 인구의 비중을 비교한다. 그 결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보건과 교육에서의 기본적 차이가 미래의 경제사회적 차이를 미리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흑인과 비 흑인과의 차이도 앞서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본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	천 명 당 유아사망률		초등교육을 마친 인구의 비중 (15세-19세)	
	원주민	비원주민	원주민	비원주민
볼리비아(2001)	79.5	51.9	73.7	86.4
브라질(2000)	37.1	25.0	63.7	78.6
칠레(2002)	22.6	20.0	93.3	95.5
코스타리카(2000)	29.0	16.5	55.7	86.3
에콰도르(2001)	59.3	25.8	70.2	74.2
과테말라(2002)	50.3	40.3	36.3	68.7
온두라스(2001)	36.9	29.3	45.1	81.6
멕시코(2000)	54.6	33.2	68.7	90.0
파나마(2000)	54.1	16.2	55.8	83.3
파라과이(2002)	82.2	39.1	21.4	82.8

<표 1> 라틴아메리카 10개국 인종에 따른 유아사망률과 초등학교 졸업률 비교  
자료: Cepal, Pueblos Indi'genas, pp. 35-62.

33) CEPAL, *Pueblos Indi'genas y Afrodescendientes de Am'rica Latina y el Caribe: Informaci' n Sociodemogr'fica para Pol'ticas y Programas* (Santiago de Chile, 2006).

그에 따라 세팔은 원주민과 흑인들을 위한 사회정책은 그들의 전통, 세계관, 언어 그리고 고유의 필요성에 맞춰 간문화적 초점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팔은 이러한 정책을 ‘정체성과 함께하는 발전 (desarrollo con identidad)’으로 정의했다.

한편 원주민의 사례만을 분석한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원주민의 불평등 사회구조가 빈곤으로 인한 낮은 교육수준과 보건 혜택 → 질 낮은 직업과 저임금 → 그로 인한 빈곤 → 또 다시 낮은 교육수준이라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 구조는 원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을 형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원주민의 비중이 높은 볼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의 사례를 통해 원주민의 빈곤률, 학력, 문맹률, 보건, 유아사망률, 직업, 임금수준들을 비원주민과 비교하여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현재 이들 국가에 존재하는 원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차별구조를 밝히고 있다.

결국 문화적 차별 즉 편견과 함께 인종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사회경제적 차별구조이다. 경제사회적 차이는 메스티사헤 담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역사적 산물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서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따라 영구화 심지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메스티사헤 이데올로기나 인종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수치로 드러나는 이러한 인종간의 경제사회적 차별구조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인종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 IV. 결론

라틴아메리카는 많은 국가들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이다. 나라마다 그 비중은 다 다르지만 원주민인 인디오, 노예로 들 어온 흑인, 그리고 정복자인 백인을 기본으로 그들의 혼혈인 메스티소, 몰라토, 삼보 등이 복잡하게 어울려 살고 있는 곳이 라틴아메리카이다. 아마 지구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곳도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미국과 남아프리카와 같은 심각한

한 인종 차별이나 인종적 갈등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거기에는 상당부분 메스티사헤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메스티사헤 이데올로기는 라틴아메리카에 순수한 백인이 없는 것처럼 순수한 인디오나 흑인의 피를 가진 사람도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아니면 어떤 인디오 원주민이나 흑인도 최소한 문화적으로는 주류인 메스티사헤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는 메스티사헤 이데올로기와 그를 통한 국가 통합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인종간의 통합을 이룩했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인종주의나 인종적 갈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연구들은 라틴아메리카에도 여전히 인종주의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인종주의는 크게 보아 문화적 차별이라 할 수 있는 편견과 사회경제적 차별로 나타난다. 페루나 쿠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인종간의 차별이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에서 인종 차별은 주로 문화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페루에서 원주민은 여전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며, 쿠바에서도 흑인들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있다. 특히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 혁명 이후에도 쿠바에서 인종문제는 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보다 심화되고 있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한편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원주민과 흑인 대 비원주민과 비흑인과의 차별구조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보건과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득 수준이나 직업 등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인종문제가 단순히 인종적 편견의 수준 외에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까지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글은 메스티사헤 이데올로기와 국가 통합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인종주의를 지적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그러한 인종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과 흑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Latin-American Racism after 'Meztizaje'

Ki Hyun Kim(Sunmoon University)

Historically, racism as it is understood in South Africa or in parts of the Southern United States has not existed in Latin America. The absence or at least the existence to a lesser degree of this type of tension is due to mestizaje ideology. But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do not exist racism like prejudice and socioeconomic discrimination against indigenous peoples and blacks. This article tries to prove that, despite having been hidden for decades behind the myth of mestizaje, anti-indigenous and anti-blacks racism in Latin America becomes a definite phenomenon with an enormous social importance.

주제어

인종주의, 메스티사헤, 편견, 사회적 편견, 라틴아메리카

Key Words

Racism, Mestizaje, Prejudice, Social Discrimination, Latin America

e-mail: drkhkim@sunmoon.ac.kr